

전남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결국 중단

“대상 건축물 없다”…도입 2년만에

“예산만 날린 출속·전시행정” 비판

나주시가 아쉽게 추진했던 ‘아름다운 건축상’을 2년만에 중단하기로 해 ‘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전통역사 문화도시’에 걸맞은 건축문화 창달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을 도입했으나 2회째를 맞는 올해 ‘대상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나주시는 지난 2006년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정해 2년마다 대상을 선정·시상하기로 하고 2009년 12월 제1회 행사 대상을 뽑아 시상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시 여수·영암 등 인근 지역에서도 앞서 시행한 바

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관계 공무원이 대상 건축물을 수소문하러 다녀야 하는 등 실패로 끝난 혼례가 있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인근 지역에 문의도 해보지도 않고 의혹만 앞세워 도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시행 첫해인 2009년 7~8월 2개월에 걸쳐 대상을 공모한 결과 주거용 17곳·비주거용 8곳 등 25건만이 응모해 향후 성공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일보 2009년 12월 16일 11면)

더욱이 응모한 건축물 가운데 한옥

건축물이 한 건도 없어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도시’와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공무원 A씨는 “민선 들어 각 지자체들이 그때그때 유행처럼 번지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게 사실”이라며 “일관성 없는 행정은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신중하게 내실있는 사업들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또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황칠나무 추출물

변비예방에 효능

전남도 천연자원원

황칠나무 추출물이 대장 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천연자원연구원 황칠 평품화육성 RIS사업단(단장 이동숙)은 최근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황칠나무 추출물을 3주간 투여한 결과 변비의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변비 증상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 특허출원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칠나무잎 추출물은 대변 양과 대변내 수분함량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대장내 숙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연구팀은 황칠나무 유효성분 발굴과 과학적 효능증증을 통한 고부가 가치 제품화와 산업화를 위한 사업에 착수해 다양한 성과들을 도출했으며, 앞으로 황칠나무잎의 유익한 성분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오 책임연구원은 “황칠나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과 대장질환 예방 등 기술을 관련기업에 이전해 산업화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취재본부=김용기자



‘생명줄’ 구명벌 투하훈련

목포 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최근 목포해양대 풀장에서 경찰관과 어민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선박침몰 및 해난사고발생시 승조원의 마지막 생존수단인 구명벌(Life Raft) 투하훈련을 실시했다. ‘해상 고무튜브 침착’으로 불리는 구명벌은 1914년 타이타닉호 사고 이후 도입된 해상구명장비이다.

(목포해경 제공)

나주 영산포에 ‘근대 포구 거리’ 조성

2013년까지 음식·근대 문화 체험 명소로

오는 2013년까지 나주시 영산포 선창 일대에 음식과 근대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근대 포구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다.

나주시는 ‘홍어의 거리’ 정비사업 등 용역을 거쳐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며 3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영산포 강변을 따라 조성된 ‘홍어의 거리’를 중심으로 식도락(食道樂)

거리가 만들어지며 옛 조선 식산은행 영산포지점에는 영산포 개항 박물관이 들어선다.

또 영산포 근대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선창 인근에는 죽전 거리를 조성하고 당시 일본인 지주 저택인 영산동 ‘구로즈미 이타로(黒住太郎)’가 옥은 원형 복원해 근대 포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영산포 선창을 중심으로 멍을거리와 불거리가 가득한 새로운 관광명소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산포는 1980년대 초 영산강 하구언이 건설되기 전까지 흥어와 젓갈 등 수산물과 다양한 곡물의 집산지이자 전남 서남부 지역의 상업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종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FAX: 02-223-1772

010-8289-8549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 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 980m², 높이 : 1397m²
• 계면 : 23평형 3개동, 계면 : 10평형 17개동, 관리동 1, 각각 독채형
• 주차장 : 80비, 수리한정지, 수면율, 기도원적합 여우대지값을 계곡있음
• 매매가 : 1억(군지당 299평/평)

모텔 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윤산면 월산리
• 대 : 1038m², 건물 : 1095m²
• 지하 1층 지상 3층, 객실 :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유통선단입구
• 매매가 : 10억(군지당 363평/평)

토지 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동동 한국아빌리움 후문부근 고너
• 대 : 262m², 제2층 일반지역지역, 원룸, 빌라, 점포형주거 적합
• 매매가 : 1억(천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대 : 1425m², 토지지적도로있음, 영산간면 경지좋음
• 매매가 : 2억(천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 210m², 제2층 일반지역지역 코너 원룸, 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대 : 9150m², 지하 1층 지상 2층, 원룸, 빌라, 점포형주거 적합
• 매매가 : 1억(천만원)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자연녹지 지역
• 대 : 16998m², 단독주택 97 호, 페도니우 2000주 포함
• 매매가 : 3억(천만원)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자연녹지 지역
• 대 : 1502m², 헌유실수 재배(배나무)

• 노노상임단지계획대로 접 현제포장도로 접 투자기여유망
• 매매가 : 2억(천만원)

과수원 매매

전라남도 목성군 목서면 신전리
• 대 : 9150m², 계획관리지역 배내부 15~20년생 2000주 이상
• 지하 1층, 높이 4~5층
• 매매가 : 1억(천만원)

전라남도 목성군 복흥면 담동리 2차선 국도면
• 대 : 1646m², 높이 : 610m², 가든건물 : 271.5m², 단독주택 : 143.55m²
• 매매가 : 6억 3천 3천평 분할설계 투자지금 2억 7천만

가든 매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22번 국도접
• 대 : 1646m², 높이 : 610m², 가든건물 : 271.5m², 단독주택 : 143.55m²
• 매매가 : 6억 3천 3천평 분할설계 투자지금 2억 7천만

대표전화 ☎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투명 수사로 신뢰 높이자”

여수경찰 ‘공정 동아리’ 발대식

여수경찰이 공정수사 등 본격적인 친서민 경찰활동에 돌입했다.

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는 지난 26일 경찰서 대회 의실에서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운동 일환으로 ‘공정 동아리’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발대식에는 수사과 직원 40여명이 참석해 공정수사 통해 신뢰받는 경찰이 될 것을 결의했다. ‘공정동아리’는 여수경찰이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사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 인권보호, 청렴의무 실현 등을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모임이다.



여수경찰은 앞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동아리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병 서장은 “국민에게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 수사관은 본인 스스로 물려나야 할 것”이라며 “어떤 수사관이 수사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 나오는 공정한 경찰로 확고히 자리 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현기자 chkim@

‘광산 우리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평동산단 우리밀 식품 생산공장도 준공

‘광산 우리밀’이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았다.

국산 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광산 우리밀’이 전국 최초다.

광주 광산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12월 특허청에 출원한 ‘광산 우리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지난 22일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산구 일원에서 생산되는 밀과 제품은 ‘광산 우리밀’ 브랜드를 달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맞물려 ‘광

고 있는 ‘우리밀 산업 특구’가 오는 10월에 정부(자식경제부)로부터 지정되며 광산구는 우리밀 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번 등록을 계기로 ‘광산 우리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관계 기관·단체와 연대해 힘껏 돋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이다.

/동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e@

市 공무원들 입장권 예매

여수박람회 열기 달군다

여수시 공무원

들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2012 여수세계박람회 티켓 구매에 앞장서 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들이 구매한 박람회 티켓은 김종석 시장 150매 등 모두 3600매다.

김종석 여수시장은 “이번에 시

직원들이 구입한 3600매는 박람회 열기 확산을 위한 단초일뿐이다.”며 “앞으로 2차, 3차 구매를 통해 박람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29일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회를 통해 박람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지부장 흥구수)는 입장권 자율구매에 적극 동참할 것을 의결하고 전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금당 공인중개사

● 병원건물

☆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정문앞 병의원
밀집지역 대지 635m² (약 192평)
건물 1,820m² (약 550평)